

# 조류 탐사 과학관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진형\*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e-mail: jinkim@chungwoon.ac.kr

## A Study on Designing Bird-watching Science Museum

Kim, Jin-Hyung\*

\*Interior Design Dept. Chungwoon University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조류 탐사관의 건축 및 전시 디자인의 특징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1. 서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화하는 지역 마케팅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와 지역 문화의 낙후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과 지역 문화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단합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사업성 확보와 지자체 정치인의 치적성 공약 등 정치와 경제적 이권에 휘둘러 본래의 의지는 퇴색되고 행사와 건축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음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조류 탐사 과학관을 건축 및 전시적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여 추후 조류 탐사 과학관의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 2. 조류탐사관 개요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조류 탐사관은 현재 운영

중인 군산의 군산 철새조망대를 비롯해 충남 홍성군 궁리에 건립중인 홍성 조류탐사과학관, 충남 서천의 리모델링중인 조류생태 전시관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곳의 전시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물관 시설가운데 과학기술의 자료 혹은 신개발 기술 등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전시 시설을 과학관이라고 칭한다. 과학관은 특히 구미의 선진국과 일본에서 많이 발전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과학기술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며 어린이의 교육에 효과적인 면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연사 박물관은 자연의 생물과 무생물등 자연에서 발견 관찰 조사되는 유물을 수집, 보관 전시, 그리고 교육하는 시설로 정의 할 수 있다. 자연사 박물관은 그 컬렉션의 어려움과 시설 규모 등의 문제로 주로 선진국에 발달한 전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조류 탐사관은 앞에서 살펴본 과학관과 자연사 박물관의 두 가지 성격을 포함하면서 주로 새의 관찰과 연구 그리고 교육에 한정시켜 특화된 전시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새의 관찰은 크게 직접적인 육안 및 망원경으로 조류 서식지 새를 관찰하는 방식과 전시관 내부의 전시물인 박제와 영상 자료의 관람 등을 통한 방법을 들 수 있다.

### 3. 서해안 지역의 조류 탐사관 현황

조사 대상인 서해안 지역에 있는 조류 탐사 관련 전시 시설의 현재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서해안 지역 조류 탐사관

명칭	위치	운영현황	형식
군산철새조망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1-1	운영중	신축
조류탐사과학관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692-1	공사중	신축
조류생태전시관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9번지	공사중	리모델링



그림1. 군산 철새 조망대



그림2. 금강 철새 군무 영상

전북 군산시 성서면에 위치한 철새 조망대는 오리의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 건물의 외형을 하고 있다. 유치한 직유법적 외형과 내용의 표현인데 가장 큰 이용자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어린이층에게는 인기 있는 외관이었다.

금강하구둑의 갯벌과 갈대숲과 함께 둥너머 광활한 논밭은 새들의 먹이원이 되어 철새서식지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러한 철새들을 관람하기 위해 탐조시설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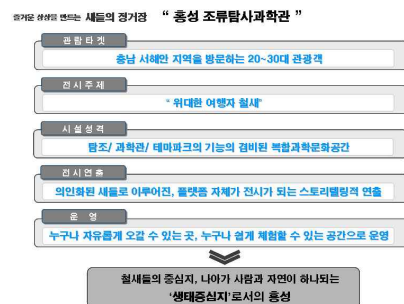
군산 금강하구 조류공원에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

는 조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나포십자들넉과 조류관찰소에는 탐조희랑이 설치돼 있고 금강조류공원에는 11층 높이의 조망대가 있다. 금강조류공원에서 철새투어 버스를 운행한다. 공원에서부터 조류관찰소를 거쳐 나포십자들넉 탐조희랑까지 왕복하는 코스다. 시간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 2004 금강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이 열린 장소이다. 금강하구 주변에 조성된 지역으로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곳이다. 전세계적으로 희귀종인 가창오리의 90%(50만마리)가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표 2>군산철새조망대 전시 내용

공간	내용
전시실 로비	전시실 현관에서는 상설전시실 및 철새조망대 관람안내 및 관람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금강하구에 도래하는 철새 귀로의 장관을 건물친장 상징조형물로 연출하였으며 키오스크를 통하여 철새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조류의 기원 과학진화	철새과학실에서는 조류의 기원인 시조새의 화석과 골격을 복원하여 조류의 기원에서부터 철새과학까지 볼 수 있다.
철새이동의 신비	철새이동의 신비로운 비밀과 이동에 따른 철새 유형을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금강하구 철새도래 현황을 개체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철새 생태실	금강하구둑아래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도요류, 오리류의 다양한 서식모습을 재현하고 갯벌속의 생물상을 지표 설계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다.
철새 영상관	금강호 철새 생태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홍성 조류 탐사과학관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전시관으로 2009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남 홍성군 궁리 해안가에 자리 잡은 전시관은 대지면적 : 9,133.00㎡, 건축연면적(1,465.78㎡), 전시면적(875.9㎡)의 규모이다.



<표 3>홍성 조류탐사 과학관 전시 기본 방향



그림3. 홍성 조류탐사 과학관 외관



그림4. 홍성 조류탐사 과학관 새 캐릭터

건축적으로 보면 외관은 노출 콘크리트와 로이 글래스 그리고 목재 루버를 사용하여 앞서 군산의 철새조망대와는 비교된다.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태와 현대적인 재료와 공사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유행하는 트렌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에 있어서는 “ 대한 여행자 철새”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를 의인화하여 만화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전시 간 영역구분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4>홍성 조류탐사 과학관 전시 내용

영역	전시내용
zone 1 도입부	-궁리광장
zone 2 플랫폼	-천수만여행사 / 천수만의 웰빙식당
	-세계철새마을 / 대합실 / 만남의 공간
	-잘걸리는 전화 / 딱맞는 구두병원
	-깃털뷰티샵 / 검표소 / 다보이는 검색대
	-철새뉴스가판대 / CCTV오락실
zone 3 자연영상	-철새들의 군무
zone 4 철새들의 비행	-인간과함께 / 날개근육운동
	-하늘자전거 / 별난새대회
	-철새E-BOOK / 날아오르는 꿈
zone 5 생명의보고,천수만	-인간보다 우월한 폐 / 비행발전사
	-천수만의 모든 것
	-모래섬, 생명의 천국
	-천수만의 사계절

충남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기존의 일반음식점 건물을 개조하여 철새 탐조대로 활용하였으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낮은 금강철새 탐조대 건물 외관 및 내부 전시를 최근의 추세와 맞물려 새롭게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로서 2007년 말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작품이다. 위치상으로는 군산의 철새 조망대와는 금강을 앞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하는 형상이다.

건축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마감(드라이비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위에 시공하는 건식공법(베이스패널)을 도입하여 공기 단축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기존의 원형매스 부분은 일부 철거 후 재시공을 통해 원뿔 형태로 변형함으로써 입면의 변화를 추구하며 전면 입면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외관의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실내에서의 조망을 좋게 하였다. 커튼월과 더불어 외관에 목재 루버를 써서 철새에게 주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림5. 서천군 조류 생태전시관

<표 5> 서천군 조류 생태전시관 전시 내용

영역	전시내용
금강홀	금강의 대자연으로 들어감
에코라운지/버드시네마	금강의 생태를 파노라마로 본다.
버드 디스커버리	새에 대한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
버드 가든	새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늘을 날아보자
휴먼 테라스	새와 함께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간다.

### 3. 결론

조류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해안 지역 외에도 전국의 많은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계획되어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그 한 예로서 의왕시에 진행중인 조류 탐사과학관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철새라는 자연의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시설물의 건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결국 철새를 불러오는 자연생태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시물이 주로 박제인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와는 달리 사이트가 자연생태 서식지에 있어야 하는 조류 탐사 과학관의 경우 무엇보다도 생태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형태와 재료 공사 방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서해안 지역 조류탐사관들은 아직 환경 친화적인 측면보다 관광자원의 건설이라는 관점이 앞서다 보니 그 형태에서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외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계획 시점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친환경적인 외관을 추구함을 볼 수 있는데 고무적인 일이다.

전시 내용에 있어서는 흥성 조류탐사 과학관의 경우 의인화 캐릭터를 개발하여 전시에 도입하고 추후 관광 상품으로 계획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새만 관찰하는 것으로는 쉽게 질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닌 재방문 관람자를 유도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 참고 문헌

[1] 임채진 외, “자연과학계 박물관의 전시내용구성 체계와 공간구조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41호

[2]. 김규원 외, 도시 및 지역 문화정책의 변화와 도전, 지역문화 정책과 마케팅, 디프넷, 2005,

[3]. 배리 로드, 문화 산업의 핵 박물관 디자인하기, 월간 디자인284, 2002

[4]. 보니타 M. 콜브 지음, 이보아 외 번역, 문화예술품 기관의 마케팅, 김영사, 2005

[5]. 박물관학 개론, 이보아, 김영사, 2000

[6].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강원, 대전, 충남, 충북), 한국박물관협회, 2006

[7]. 마이클 벨처,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예경, 2006

[8]. 박선상 외, 폐광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전시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

[9]. 오즈카 카즈요시, 홍종필 역, 박물관학, 백산출판사, 2004